



즉시 배포용: 2020년 7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가 코로나19 약물인 렘데시비르를 플로리다에 보낸다고 발표
280명의 플로리다 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약물은 내일 배송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코로나19의 재증가와 싸우는 플로리다에 코로나19 약물인 렘데시비르(Remdesivir)를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연방 정부에서 추가 공급을 기다리고 있으며 뉴욕은 연방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280명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를 돕기 위해 충분한 렘데시비르를 제공할 것입니다. 약물을 실은 뉴욕의 선박은 내일 플로리다에 도착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싸움으로 자원이 부족할 때,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품과 의료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나선 주변 주들의 관대함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뉴욕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과 그 주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감염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지속적인 규율과 데이터 중심의 단계적 재개와 함께 뉴욕의 수치는 여전히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주들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호의를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뉴욕 주민을 대신하여, 플로리다가 연방 정부의 추가 공급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에 대한 치료를 돕기 위해 렘데시비르를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함께 코로나19에 맞서 싸울 때 우리는 동료 미국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뉴욕주가 공급하는 물품으로 플로리다가 내일부터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